임남진 〈풍속도 2〉

빚고을 사람 맛에 영흥식당 음식 맛은 뒷전

글 · **김학민** hakmin8@hanmail.net

이 연재를 시작하기 전 전국의 '운동권 술집, 밥집'의 존재 여부를 수소문해 보려고 서울의 각 대학 출신자들과 지방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다. 제일 먼저 문국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의 소개를 받아 5 · 18재단 조진태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의 '민주화 운동 관련' 술집을 물었다. 그런데 조 처장의 대답이 "있기는 있는데……" 하면서 우물쭈물 말꼬리를 흐리는 게 영 미덥지 않았다.

7,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파란만장한 사연이 듬뿍 녹아있던 서울대 앞 녹두집, 고대 앞 고모집, 서강대 앞 육교집은 훨씬 전에 사라졌다. 성공회 성당 내 세실 레스토랑은 이 연재 한 달 전에 문을 닫았고, 전국 지방 대도시 같은 류의 식당들도 이제는 대개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하니 세월의 흐름 속에서 광주의 식당들이 같은 운명이 되었다고 해서 추억의 끈을 놓쳐 서운할지언정, 좀 야박하지만 세태로 보면 그리 이상할 것도 없다.

지난달 중순, 조진태 사무처장의 "있기는 있는데……"라는 말만 믿고 광주행 고속버스를 탔다. 조 처장과는 저녁 술시에 조금 이르게 전화해 만나기로 어정쩡한 약속을 잡았다. 조금 일찍 내려가 2008년 광주비엔날레 '복덕방 프로젝트'가 펼쳐진 대인시장을 둘러보기로 일정을 정했다. 현재 재래시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빈 가게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한 재래시장에 '사람의 기운'을 불어 넣으려는 마음으로 작가들이 전시장, 작업장을 차려 목하 접목 중인 곳이 대인시장이다.

오밀조밀 어물전, 이불가게, 개소주집, 막걸리집, 과일가게 틈틈이 빈 점포에 작은 화랑, 공방들이 박혀 있고, 내가 즐겨 정기구독하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잡지 〈전라도닷컴〉의 사무실도 시장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닷컴〉 사무실에 들러 사장이자, 편집국장이자, 광고국장이자 기자인 황풍년 씨와 안면을 트고 이런저런 광주 이야기를 풍성스럽게 나누고 있는데, 멋들어진 가객 차림 한 분이 들어왔다. 화가 박문종 선생이다.

박문종 화백은 광주의 한 일간지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닷컴〉에서 〈선술집 풍경〉이란 책을 내었다. 나는 이 책을 우편으로 주문해서 대충 훑어보고 놓아두었다가 광주에 내려오면서 고속버스 안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삽화는 물론 글 솜씨, 입담, 술꾼의 내공 등 여러 면에서 내가 겪어 보지 못한 무림의 고수였다. 아, 강호에는 정말로 인물이 많을 진저! 그리고 행복하게도 오늘

그를 우연히 만났다.

박문종 화백은 내가 광주에 내려온 목적을 말하자 숨쉴 겨를도 없이 "아, 거기 영흥식당일 것이요" 하고는, 우선 막걸리나 한 잔 하자며 시장통 대포집으로 이끌었다. 어쩐다? 저녁에 취재를 하자면 또 술인데. 뭐, 막걸리 몇 잔은 괜찮겠지. 박문종 화백, 황풍년 사장, '화실 아래 넝쿨덩쿨'의 신양호 작가, 공방 '뻥 튀밥'의 윤남웅 작가와 함께 한 막걸리 판은 광주의 어제와 오늘, 내일, 그리고 전라도인의 삶, 호남의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끝이 없었다.

구 동구청 뒤 영흥식당에 도착한 것은 약속시간 7시를 30분이나 넘긴 뒤였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출발했는데도 동구청이 몇 번을 이전했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의 '동구청 뒤'가 제각각이어서 좀 헤맨 것이다. 조진태 처장과 화가 김경주, 조정태 씨가 기다림을 깨기 위해 먼저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김경주 화백은 전라도의 풍경과 서민들의 모습을 즐겨 그려 온 분으로, 〈닷컴〉에서 그의 그림과 글을 추어 묶은 책 〈화창한 날의 상처〉가 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전라도닷컴〉 사무실에서 황풍년 사장으로부터 영흥식당 일대를 한 장의 풍속도로 옮긴 임남진 화백의 그림이 실려 있는 과월호를 한 권 얻었다. 일행에게 그 그림이 실린 페이지를 펼쳐 보이니 당장 임남진 화백을 부르겠단다. 이리하여 막걸리보다 담배가 더 좋다는 화가 임남진 씨도 그 자리에 합류하게 되고 오월과 그 이후, 그리고 광주의 술집에 대한 이야기판은 끝없이 이어져 갔다.

이제 이야기 주머니가 풀리기 시작했다. 왜 조진태 처장이 민주화 운동과 밀접한 광주의 술집을 알려 달라 하자 "있기는 있는데……" 하며 말꼬리를 흐렸는지를. 정리하자면,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민주투사'들은 대학생은 물론 택시, 버스 운전기사에서부터 구두닦이, 양동시장 노점상 아줌마, 대포집 주인에서 교수, 목사, 신부에 이르기까지 전 광주 시민이었으니, 따지고 보면 광주 시민들이 다닌 술집이 모두 운동권 술집인 것이다. 그러니 그 중에서 '먹물'들이 즐겨 다닌 술집만 골라낸다는 것이 좀 거시기할 수밖에.

김경주 화백은 1970년대 이래 광주의 운동권, 문인, 예술인들이 이합집산하며 어울렸던 술집들을 쭉 꿰고 있었다.

고 김남주 시인이 1970년대 후반 카프카 서점을 운영하고 있을 때 박석무, 이강, 박석면(박석무 전 의원의 동생), 박몽구 등이 매일 죽치고 배갈을 마셨던 중국집 '왕자관'은 광주경찰서 내려가는 골목의 중소기업은행 지점장 사택 옆에 있었고, 80년대 초 운동권이 자주 다녔던 '통나무집'은 닭죽이 유명했는데 경찰 프락치가 상주하고 있어 사발통문이 돌아 발길을 끊었단다.

이밖에도 여수 출신 노처녀 둘이 운영했던 '이것저것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묘한 이름의 술집은 배고프다 하면 언제나 정갈하게 국수를 삶아 내왔고, 금남로 뒷골목 주차장을 임대해 연 '실비집'은 두부 요리가 특히 맛있었는데, 김남주 시인의 장례식 때는 하루 종일 밥을 한 솥 해놓고 문인, 후배들을 먹였으며 노제 음식도 이 집에서 준비했단다.

노동운동 출신 조진태 사무처장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7, 80년대에 미 문화원 부근에 사회과학 전문 한얼서점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칠소주코너'라는 뼈다귀 감자탕집이 있었는데 들불야학에 관계하거나 다니던 노동자 학생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무등경기장 앞 포장마차 촌은 밤이면 광천공단, 본촌공단, 하남공단 노동운동가들의 집합처였지요. 증심사 입구에 있는 닭집 광명식당은 별채가 있었는데, 저녁에 모의(?)를 하기 위해 별채에 자리 잡고 음식을 시키면 음식 값만 받고 주인, 종업원 모두 퇴근해 버려 숙박은 항상 무료였지요."

왼쪽부터 조진태 처장, 조정태 화가, 김경주 화백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다.

구 동구청 뒤 영흥식당(062-232-9351)은 그해 오월 이후 금남로 축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주화 투쟁의, 모든 문화예술 행사의 종착역이 되었다. 80년대에는 오월의 한과 기억을 되살리는 가열찬 투쟁의 휴식처였고, 90년대 이후에는 '예술의 거리'에 밀집한 광주 예술가들의 '주막 아카데미' 역할을 했다. 오방색을 중심으로 탱화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색조로 영흥식당 풍경을 그린 화가 임남진은 이렇게 말한다.

"철없어야 예술 한다는 선배들의 말에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철없이 드나드는 곳. 이곳이 바로 광주 금남로 예술의 거리 영흥식당이다. 해마다 오월이면 '희망과 약속'의 힘을, '사랑과 우정과 믿음'을 보여주고 말없이 묵묵히 길을 밝혀 주던 '사람들의 공간'이다. 스스로 져야 할 각자의 짐을 안고 막걸리와 소주 몇 잔에 '꿈꿀 자유'를 허락했던 이곳은 마치 공간과 시간이 폐쇄된 세계처럼 밤낮은 물론 과거와 현재가 혼재된 유일한 공간이 아닌가 싶다. …… 지금도 가끔 이곳을 찾는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머물고 싶거나, 잊혀진 사람들과 희미해져 가는 꿈들을 기억하며 불멸의 '희망'을 꿈꾼다."(〈전라도닷컴〉 2008년 5월호)

남도음식의 곰삭은 감칠맛처럼 포근한 정을 보이는 해남 출신 임병숙(61세), 임미숙(57세) 자매가 정성들여 만들어 주는 두부부침, 삼치구이, 황새기 튀김, 오징어 데침에 막걸리 주전자는 연실 주방으로 들락거린다. 요즈음은 생태찌개가 맛이 있어 아주 인기라는데, 양을 조절하지 못했던 낮술 탓에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일행들과 3차, 4차를 뜀박질하듯 이어간 후, 늦은 밤 30여년 년 전 비명소리, 신음소리 허공을 찔렀던 옛 상무대 자리 어느 이름 모를 모텔 방에 나그네의 몸을 던졌다.

글 **김학민** | 민주화운동으로 수 차례 투옥된 바 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음식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blog.naver.com/hakmin8)